



# 朝鮮佛敎의 改革案

韓龍雲

## 一、緒言

朝鮮佛敎의 改革은 空想의 理論을 떠나서 歷史의 必然의 實行期에 際會하여야 한다. 아득도山間에 있어서 時代를 理解하지 못하면 固陋한 僧侶라든지 多少의 時務를 안다는 者의 保守主義者로써 因循姑息 自然成長의 改良主義를 死守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렇나 方張의 龍象의 양이 奮發하여야 하는 青年佛徒의 懷抱라든지 急務와 양이 勤奮하는 四圍의 情勢로 보아 朝鮮佛敎의 改革運動은 兪어한 形式으로든지 權變되지만 兪어한 것이 된다.

一千五百年의 長久世 歷史를 가진 朝鮮佛敎는 朝鮮의 化에 對하여 兪어한 貢獻이 있었는가 한 말로 말하자면 佛敎를 떠나서 朝鮮의 文化를 發展시킨 것이 없다. 建築에 있어 그러하고 繪圖에 있어 그러하고 雕刻에 있어 그러하고 國民文學에 있어 그러하고 文字圖俗의 價値言語乃至地名(山名水名村名等) 등 모든 일에 佛敎의 惠澤을 받지 않았던 것이 없고 世界的 偉人의 偉대한 人物으로 元曉義相大覺普照西山酒溟等이 있고 世界的으로 자양한 만 길의 있고 목에 있어서 한民族으로서 한國家로서 이 땅과 더불어 榮光한 것이 朝鮮에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海印寺의 藏經板이 있고 佛國寺石塔廟의 美術品이 있고 其他한 金經板繪畫等은 佛敎에 關한 價値한 것이기 때문이다.

朝鮮에 佛敎가 들어온 본래 新羅高麗에 있어서 空盛時代가 되었다. 그때에는 朝鮮固有의 文化도 別로 없었고 漢文化의 輸入도 傳播하였으므로 佛敎의 文化가 어느 공에 透入지 안이 한 때가 없었다. 그리하여 朝鮮의 山河의 人文은 意識의 無意識의 으로 深淵히 佛敎化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遺傳의 習慣의 으로 傳來하여 있음으로 器世間과 人文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精神上 特別히 信仰心에 至하는 것은 根柢를 佛敎에 두지 안이 한 것이었다. 假令 形式에 있어서는 非宗教人이라 할지라도 信仰의 動

態는 佛敎의 이며 또 信仰의 方面을 轉換하여 實은 宗教를 말함지라도 그 信仰心의 本源은 佛敎의 習慣或 遺傳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럼으로 佛敎는 朝鮮과 朝鮮人의 全의 生活에 對하여 能히 分離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朝鮮民族의 精神의 動向과 生活의 形勢를 改良成은 革新이라 하면 그에 對한 歷史의 領導權을 갖고 있고는 佛敎의 改革이 먼저 그 衝에 當하지 안이 하면 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人의 精神과 生活의 新世界를 開拓하려면 朝鮮人의 精神과 生活의 形以上の 產婆業을 把持하고 있는 佛敎가 먼저 革新되자 안이 하면 안이 된다 는 것이다.

그러한 때 朝鮮佛敎는 兪어한 現像이 되었는가 內的 條件과 外的 情勢 兩은 것을 綜合하여 보면 實은 尙殘一髮百尺竿頭에 서 있다. 왜 그렇나 하면 羅麗以來로 그렇게 純潔한 光明을 본 佛敎가 李朝末葉以後로 壓迫에 壓迫을 받고 腐敗에 腐敗를 加하여 殘喘을 僅保하는 것은 迷信의 形像뿐이오 多少의 名僧高僧이 없지는 것은 안이지만은 實은 鳳毛麟角이었다. 最近에는 時代를 洞察하고 事物을 批判하여 佛敎의 革新을 唱道하는 新人物이 多少 있는 것은 안이나 아득도寺刹의 實權을 把持한 者는 時務를 獨은 舊人物이 안이면 因循姑息의 平凡人物이 안이 하고 所謂本山住持中에는 官邊에 阿附하여 邪惡卑劣한 行動으로 佛敎의 改革運動을 阻害하는 者流가 沒落過程에 있으면서 아득도다 清算되지 못하였다.

外的 情勢로는 特殊事情을 갖은 朝鮮에서 더욱 二重特殊의 事情即 寺刹令의 干渉을 받게 되고 赤色運動者의 反宗教行爲는 理論으로 行動으로 日復日 濃厚하게 가고 其他 唯物主義 無政府主義 虛無主義等의 모든 潮流가 懷山襄陵 宗教와 宗教를 壓倒하고도 남음이 없게 보인다.

이러한 危機에 際遇하여 內的 條件과 外的 情勢가 한아도 不利하지 안이 할 수 없는 朝鮮佛敎, 그 發生의 道는 果然 兪어한가

## 二、統一機關의 設置

敎團이나 非敎團을 勿論하고 集團의 運用은 반듯이 統一을 要하니 왜 그렇나 하면 集團의 運用은 一定한 指導原理과 있고 行動綱領의 부호로 貫이 있어서 順序의 으로 進展하지 안이 하면 안이 되는 까닭이다. 集團의 運用은 一身의 運用과 같은 것이니 一身의 運用은 心識의 領導를 받어서 五官과 肢體가 各々 機能을 다하여 서로 協調되게 하니 만일 心識의 統一의 領導가 없으면 右手로 左手를 傷하고 視覺으로 聽覺을 攪亂하여 到底로 完全한 人格의 行動의 秩序를 維持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團體의 行動이 統一이 되지 안이 하면 集團의 意義가 成立되지 않는 것이니 엇지 그 所期의 目的을 達하리오

朝鮮佛敎의 傳統的으로 各立하여 統一이 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近來에 統一機關을 意味한 宗會, 敎務院이 있으나 다만 義理의 統一의 實績을 收獲하지 못하여 佛敎의 統一의 事業에 莫大한 支障이 되나니 그 原因은 一言으로 蔽하면 僧侶의 自覺不足의 結果이다. 그렇나 假令 僧侶의 自覺이 充實하다 할지라도 機關組織의 內容이 相當한 機能을 갖지 못하면 統一의 目的을 達하기 어렵겠이다.

朝鮮佛敎의 統一機關은 現在의 三十一本山을 領導할 만한 實權의 內容을 갖지 않고 漢然한 概念의 規約만으로는 언제까지든지 紙上空文의 夢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나 三十一本山을 領導할 만한 實權은 얻어 한 것 같아도 된 것인가 그것은 萬分 簡單하다. 統一機關에서 三十一本山의 住持를 任免하고 所謂 寺法을 統一하여 統一機關의 命令에 服從하는 義務를 갖게 되면 足한 것이다. 이것이 寺刹令以後에 官廳의 任免을 받게 되는 것을 萬上의 光榮으로 생각하여 官廳에 要請을 하고 聖敕을 받으면 住持의 地位를 保存하기 위하여 榮々發々하는 卑劣한 非僧의 眼目으로 보면 佛敎自體의 機關에서 住持를 任免한다는 것이 一種의 變態으로 생각되는 同時에 死力을 다하여 反對할지도 못할 것이다. 恐怖를 갖긴다는 것은 말은 것이 안이다. 官廳에 謁談하여 其 位置를 保호하는 자는 勿論 非人格者이다. 佛敎의 統一機關에서 住持를 任免하게 되면 正當한 人物本位로 생각될 것이요 既成 住持中의 非人格者는 急激한 沒落을 當할 것이다. 彼等의 反對運動은 實로 可憐한 同時에 憐憫한 것이다. 그렇나 曠野의 天日을 가리지 못하고 殘雪이 陽春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니 可憐한 小人輩가 었지堂々한 朝鮮佛敎의 前途光明을 타오리오.

宗敎團體가 自治的으로 그 敎團의 任免을 任免하는 것은 當然以上의 當然이다. 佛敎團體가 스승으로 統一의 最高機關을 두고 그 機關으로 하여 各寺住持를 任免하고 一切의 敎務를 指導하는 것이 萬은 不可한 것이 있으리오. 統一機關의 表現方式으로는 總本山과 敎務所의 二方式이 있을 것이나 總本山이라는 것은 現在의 本山中에서나 或其外의 一寺를 擇하여 各本山의 外에 屬하는 總本山을 삼아서 그 總本山에서 各住持를 任免하고 一般敎務를 指導하여 스승으로 統一機關이 되어 敎務所라는 것은 現在의 本山制를 그대로 두고 朝鮮佛敎의 全體를 代表하는 總機關을 別로 두어서 寺刹住持의 任免과 一般敎徒의 領導와 其他佛敎의 全의 行爲를 代表하는 것이다.

二種의 方式即 總本山과 敎務所가 表現의 形式은 달으나 統一機關의 職能을 行하기는 一般이다. 그렇나 朝鮮佛敎界의 現今情勢로는 現存의 本山制를 그대로 두고 別로 敎務所를 設置하는 것이 一般僧徒의 人心收拾上 多少 便利할 것이다. 統一機關 表現方式의 何者를 勿論하고 統一機關의 原則이 있어서 各寺住持 任免權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各寺法을 改

正하여 統一機關의 命令에 服從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三、寺刹의 廢合

羅麗의 佛敎全盛時代에는 寺刹의 大部分이 都會地와 村落에 있었다. 李朝中葉으로 들어 佛敎의 勢力이 發展됨을 말하여 政治的社會的으로 佛敎에 壓迫을 加하게 되었다. 佛敎가 漸々衰微하여 窮境에 至할 때 自然히 都會을 떠나 山間으로 들어 가지 안이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므로 都會와 村落의 寺刹은 漸々廢廢되고 佛敎徒의 數도 減少됨에 殘餘의 僧徒는 一般社會를 離하여 屢逐을 當하여 山間의 寺刹에 棲息하지만 하면 안이 되게 되었다. 그렇하여 山間에서 山間으로 幽僻을 極하여 佛敎의 人間社會와는 完全히 隔離하게 되었다.

時日의 오래됨을 따라 佛敎徒 스승으로 佛敎徒의 山間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一般社會에서 佛敎徒는 世間과 交涉이 없는 것이 敎理의 原則인 줄로 誤解하게 되었다. 지금에 있어서도 佛敎徒가 都會에서 布敎을 한다든지 佛敎機關에서 社會的 事業을 하는 것은 一種의 實果或은 佛敎의 本質의 破壞로 생각하는 사람이 僧俗을 勿論한 그 數가 자못 적지 안이 하다. 山間의 寺刹은 廢墟를 띤 단 修道地로서 必要가 있는 것이니 山間의 寂靜清幽한 곳에 多少의 修道院을 두는 것은 可한 일이다. 佛敎의 全體를 窮山僻地에 幽閉하여 廢在利物의 宗旨을 違反하는 것은 魔行外道에 不遜한 것이다. 그렇하여 寺刹은 高峰에서 絶頂으로 幽谷에 僻地로 그 位置는 窮極에 達하고 大寺에서 小寺로 庵子에서 土窟로 分離又分離하여 寺刹은 劣敗生活의 個的根據地가 되고 말았다.

지금에 이르러 殘寺孤庵의 現象은 얻어 한가 財產의 收入이 없거나 大寺의 附近에 있는 것은 空虛한 곳도 많거나 其外에 相當한 收入이 있는 곳에는 例의 非僧俗의 住持或은 僧院이 있어서 多少의 收入으로 私生活에 充當할 것이요 佛敎의 面影은 殘寺古庵의 塵土中에 묻혀 있는 佛像佛具等의 風靡雨洗한 殘骸뿐이다. 그렇나 寺庵은 佛敎를 爲하여서의 存在가 안이오 個人의 殘世生活을 爲하여서의 必要가 되나니 佛敎發展에 對하여 何等의 必要가 있을 것인가로 도로하 佛敎統一上 妨害가 되고 世人에게 非難의 資料를 供給하게 되나니. 그렇나 寺庵의 存在意義는 壽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나 寺庵의 全部即 基址 山林 土地 建物等을 合하면 實로 相當한 巨額이 될 것이니 寺廟의 巨額을 總合하면 얼마나 한 巨額의 總額을 豫斷하기 어렵지 안이 하다.

山間에 散在하여 佛敎의 發展에 必要가 없고 그러치 修道의 場所로 使用하지 못할 寺庵은 一切廢止하고 地理上 其他 必要한

事情에 依하여는 數寺庵의 合併도 無妨한 事이다. 그리하여 無用의 散財을 收合하여 佛敎의 全體를 爲하여 適當히 使用한다 면 일대나 必要할 事인가.

各地에 散在한 無用의 寺庵을 그대로 두어서 지금의 現像을 維持한다 면 尙前人의 信施를 功田하여 버려야 個人의 暇世生活을 助長하여 僧徒로 하여금 不淨業을 짓게 하는 것이요 佛敎의 發展의 經濟上 그만한 財源을 損失하는 것이니 適當히 寺庵의 廢合을 行한다 면 實로 一舉兩得의 成果를 얻을 事이다.

### 四、教徒의 生活保障

教徒의 生活保障이라면 그範圍가 廣大하여 要領을 捕捉하기 어렵은 漠然한 問題가 될 事이다. 왜냐하면 多數한 教徒의 生活을 一々히 保障하기는 勿論不可能인 事이다. 그렇나 지금에 있어서 敎養發展하랴면 可及의 教徒의 生活을 保障하지 안 이하면 안이 勿論運에 際會하여 있다. 世界酒々 唯物主義에 偏傾하여 人間社會의 모든 일보다 生活의 保障이 第一先決問題가 되 나니 唯物主義에 對한 理論의 可否는 別問題로 하고 多數한 人衆의 生活의 保障을 土著로 하고 同一線上에서 唯物主義에 突進하는 것이 事實인 이상 宗敎로서 唯心論이나 有神論만 發展開하여 死活線上에서 鬭爭하는 大家를 報復적으로 克服하기 만일 望하는 것은 宗敎의 本義가 안 될 事이다. 宗敎는 人衆을 指導하여 그들의 幸福을 增進하는데에 宗敎의 本質의 意義가 있는 것 이다.

佛敎는 時 處 衆生의 根機를 따라 濟度의 方便을 달나 하나나 부처님은 차음에 大乘法을 說하시다가 五千의 退席을 보시 고 다시 三乘法을 說하셨으며 鹿野에서는 大小牛滿의 諸經을 說하시고 泥連河畔에서는 涅槃經을 說하셨으며 婆羅門을 對 하여는 婆羅門法을 說하시고 外道를 對하여는 外道法을 說하시니 時代와 處所와 所度衆生의 根機를 따라 方便의 運用이 달 으신 事이다.

그렇나 時代思潮의 轉移를 따라 敎理의 本領을 變하는 것이 안이라 다만 時代人衆의 欲求에 應하여 事爲의 方便을 濶和한다 는 事이다. 現今大衆의 渴望이 生活保障에 있는 이상 그들의 生活問題를 度外에 置하고 自己의 敎理만을 宣布하라 하면 이것은 社會現實의 幸福을 등지고 獨自空想의 天國을 向하는 것이니 一切衆生을 對象으로 하여 敎化濟度를 本務로 하는 大宗敎의 權化 가 없지 아니 그러리오.

寺刹의 固定財產을 流通財產으로 變更하고 各寺의 財產을 融通合致하여 統一機關으로 만들어 그것을 適當히 運用하되 그

것으로 消費事業以外에 適當한 生産機關을 施設하여 그 施設의 直接間接으로 教徒의 生活을 保障한다 면 相當한 良果를 얻는 것이다. 無論 寺刹의 財產을 融通合致하여 어느 程度의 巨額의 達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運用施設로 全般教徒의 生活을 保障 하게 될 수는 없는 事이다. 그렇나 一靈의 酒가 能히 一河의 水를 酒味로 化하지 못하나 能히 三軍의 心을 勇氣가 하나나 佛敎의 事實의 動向이 教徒의 地實欲求에 調和된다 면 衆心의 趨向이 그를 歡迎하고 그에 輻濟할지라 一事의 實行이 十言의 空論 보다 나은 事이다.

만일 佛敎로서 前日과 같이 信徒僧徒의 冥福을 번득이지 或은 種々佛事를 口實로 하여 그들의 施財財을 多方으로 受取하 야 그敎中의 高積을 企圖하고 一般教徒의 窮困을 度外에 視한다면 佛敎의 度濟衆生하는 本義가 안이 된다. 生活線上의 噴火口에서 萬死를 賭하여 一生을 求하는 赤色부도 大衆의 決死的 反宗敎運動을 發지 할 事이다. 또는 生活의 破滅을 當하여 死를 求하여도 오히려 덜지 못하는 慘境에 있는 人衆들이 佛壇아래에서 香을 불사르고 經을 외을 수 있으며 指導階級에 있 는 青年僧徒들이 運動線上에서 活躍할 수가 있겠는가. 現今에도 知識階級의 佛敎青年들이 生活의 질을 얻지 못하여 半僧 半俗의 岐路에서 彷徨하는 자가 적지 안이 한 것을 目擊할 수 있는 事이다. 그리하여 教徒의 生活保障은 佛敎私布의 指針을 把持한 推進機가 되는 事이다.

### 五、經論의 翻譯

言語와 文字의 意義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意思를 理解하고 認識하게 하는데에 그 必要의 價値가 있는 事이다. 意義와 像形이 다른 外國의 言語나 外國의 文字로 能히 自國人에게 一般의 理解를 及시킬 수 없는 것이요 變遷의 懸絶한 古代의 言語文으로 能히 現代人에게 普遍的으로 理解시킬 수 없는 事이다. 그분안이라 古은 言語文字라 할지라도 그 構成의 本易와 難雜을 따라서 普及의 遲運에 影響이 甚히 큰 事이다.

佛敎經典의 全部를 合하여 大藏經이라 하나나 大藏經은 그 卷秩이 浩漭한 분안이라 全部가 漢文으로 되어야 하 漢文을 專攻하 든 新敎育以前에 있어서도 一般에 普及할 可能性이 없었던 것인데 허물며 漢文을 專攻하지 안이 할 분안이라 漢文排斥의 聲이 날로 높아가는 時代에 難解難解의 漢文의 經典을 갖게 되고 그들 一般에 普及하라 하면 그분안의 不可能인 事이다. 佛敎의 直接方式는 言語와 文字의 두 가지가 있으나 言語即說敎는 特殊施設에 對한 一時的 集合에 限하여 그 效能을 내는 것 이요 普遍的인 恒久的의 것으로는 文字가 안이 안 된다. 各宗敎界에서 大家에게 普及될 만한 가장 平易한 文字로 그 敎義



